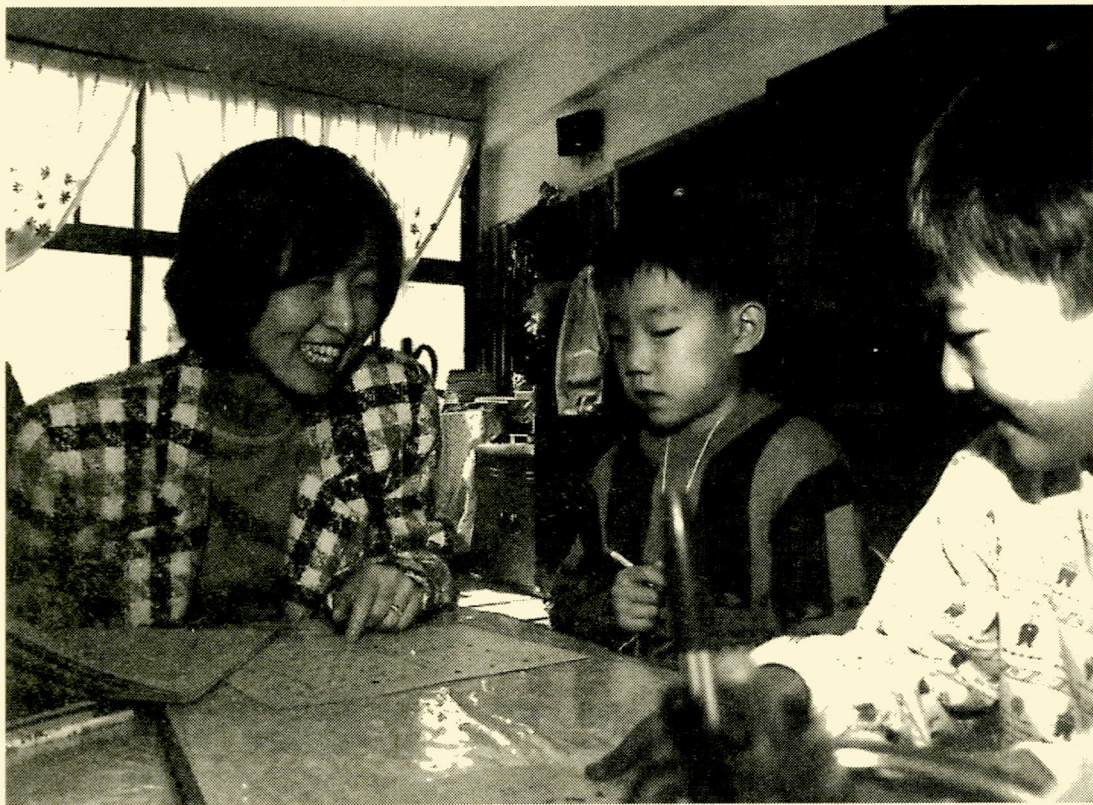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변혁시대의 주역, 30대 여성을 분석한다 ④- 전업주부, 그 이상과 현실 하

'환상 속의 그대'의 이유있는 불안증

준비없이 시작한 결혼생활, 현실적응 과정서 갈등 겪어



30대 전업주부들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상처투성이의 영광' 보다는 가사와 육아에 충실하자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리기도 한다(사진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에서 활동하는 김명신 씨가 열린 교육을 하고 있는 서울 장평국민학교를 찾은 모습).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신경정신과의원에는 하루 5-6명, 한달 평균 1백20명 정도의 30대 전업주부들이 찾아온다. 신혼주부, 중산층주부, 저소득주부, 대가족주부, 핵가족주부 등등 30대 전업주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천양지차일테지만 이들의 고민으로부터 야기되는 병적증상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불안증이다.

갑자기 가슴이 갑갑해지고, 이유없이 신경이 날카로와 지기도 하며,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퇴근이 늦은 남편에 대한 미움이 막 끓어오르기도 한다. 30대 전업주부들이 호소하는 불안증은 현실적응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40-50대 중년 주부들의 우울증, 이른바 '위기의 여자' 신드롬과는 다르다.

김병후 연희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30대 전업주부의 불안증이 대체로 두가지 이유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핵가족이 되면서 주부의 역할과 책임이 많아졌어요. 현대사회는 주부에게 육아, 교육, 가사, 외조 등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 수준의 기술과 정보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못한 주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남편의 성공이 불안하다

두번째 이유는 '의식화된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시대 30대 여성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70년대 후반기와 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30대 여성은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쟁취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있어서는 누구

보다 확고한 의식으로 무장돼 있었지만 결혼이후 자신이 부딪쳐야 할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로 현실 속으로 들어갔다.

"병원을 찾는 30대 전업주부들 중에 학창시절 운동권이었던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자신은 결혼이후 육아와 가사의 부담에 대책없이 파묻히고 있는데 남편은 사회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해 가는 겁니다.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못 견뎌합니다."

상담사례가 하나 있다. 학창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했던 남편은 현재 유력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잘나가고' 있다. 그러나 출세가도에 있는 그 남자의 아내의 남편의 성공등과 비례하는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결혼이, 아이가, 살림살이가 자신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원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임은주 씨(32, 서초구 잠원동)도 비슷한 고민을 앓았다. 남편 이일권 씨는 동갑.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신분이던 남편과 87년도에 결혼해서 국민학교 1학년 딸 정민과 다섯살 된 아들 정한이를 두었다. 임 씨는 요즘 선배들의 "너도 막상 닥쳐봐라, 이론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란 외마디 비명의 위력을 절감하고 있다.

임 씨는 결혼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 인줄 알았다. 안정된 가정 속에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임 씨의 결혼 이후 인생 계획이었다.

예상치 못한 결혼의 현실

그러나 임 씨의 계획은 '그놈의 돈' 때문에 처음부터 엇나갔다. 남편은 교직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안돼 전교조문제로 해직됐다. 이후 임 씨 가족의 생계는 하숙비로 충당됐다. 다행히(?) 고향이 제주도인 임 씨에게는 서울로 유학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있어요.
나이가 찼으니 어서 결혼하라고만 했지
결혼으로 인해 부딪치게 될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은 두 동생이 있었고, 하숙비조로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인 생활비가 올라 왔던 것이다.

"결혼에 대해 막연한 환상. 그 이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이는 언제 낳는 것이 적당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심지어 피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한채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나이가 찼으니 어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걸게 될 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없었거든요."

임 씨는 '얼떨결에' 첫애를 낳았다. 살림형편이나 심리적 상태로 봐서는 좀 더 있다

아이를 낳아서야 했다. 아이에게 결과적으로 좋았을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 모유를 먹여야 할 때는 서러운 생각밖에 없었다. 여성에게 아이가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의무를 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덥석 받아 안은 육아의 부담은 선배들의 말대로 겪어보고서야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큰애 낳고 한번 낙태를 했어요. 그때 힘들어서 그랬는데 낙태를 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싶어지더군요. 첫째 경험으로 출산조절을 해야겠다는 것을 절감해서 한 일인데, 아뭏든 큰 애 낳고 철저한 계획 아래 둘째 아이를 낳어요."

임 씨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게 된 자신을 대신해서 남편이 '잘 나가길' 바랬다. 대리만족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해직된 이후 임시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생활은 그 스스로도, 임 씨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결혼생활, 만족스럽지 못한 남편의 사회생활. 그로인한 임 씨의 피해의식은 컸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게 되고, 남편도, 자신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 네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결혼 전의 내 모습, 이념, 이상만을 돌이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속에서 미래의 대안을 찾으려고 했으니 더 꼬였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 생활 속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고 생각했어요."

큰애 정민이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은 환상을 버린 임 씨가 첫번째로 집어낸 현실문제였다. 학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학교교육이라는 말은 말짱 헛것이였다.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름의 교육관이 공교육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교사가 이끄는대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학교 교육은 엄마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주고 있어요. 저도 이런데 취업주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 학교교육을 시킬지 상상이 안갈 때가 많아요."

임 씨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대의명분을 세웠다. 교육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요즘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주최하는 '학부모아카데미' 강의들을 듣고 있다.

임 씨는 또 팽팽한 긴장감과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젊은 여성으로서가 아닌 두아이의 엄마, 한 가정의 주부로서 다시 인생설계를 했다. "의상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1-2년 투자해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겨서 학원비 걱정을 안했으면 좋겠고요. 남편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임 씨는 이제 노래운동패 '꽃다지'의 공연도 예전의 조급함이나 죄의식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갈등의 터널'을 먼저 건너온 김명신 씨(39, 강남구 역삼동)는 "초초해 말라"는 말을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한다. 그도 5년 전, 아들 동원(국교 6년)과 딸 동녕(국교 3년)이 엄마의 잔손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을 무렵 취업을 지상명령으로 생각했다. 사회도 주부들에게 '밖으로, 밖으로'를 외쳤다. 김 씨는 그러나 곧 '취업만이 과연 살길인가'라는 고민에

빠졌다. "취업하더라도 직장과 가정을 50% 밖에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결론을 내렸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운동의 필요성도 느꼈고, 주부로서의 제자리 찾기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향을 선화하면서 마음도 편해졌어요."

갈등의 터널을 건너

30대 중반 재취업을 위해 몸부림쳤던 갈등의 터널을 건너오는데 김 씨에게 도움을 준 것은 여성운동단체인 '또하나의 문화'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였다. '또하나의 문화'에서 만난 동인들과 주부의 삶에 대해 현실적, 이론적으로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그의 갈등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든든함을 줬다. 학부모연대에서는 현재 자원봉사로 회보 제작을 전담하고 있다. "30대 초,중반에 있는 여성들은 빨리 뭔가 시작해야겠다는 조급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직업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주부들의 일손을 더 요구하게 될 겁니다.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사회운동 중 한가지를 꾸준히 하다보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기는 쉬울 것입니다."

고민과 갈등 끝에 안정을 찾는 여성들도 있는 반면 일찌감치 '현명한'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많다. 윗세대의 시행착오를 통해 이미 확인된 바에 따라 '상처투성이의 영광'을 얻느니 '안정 속의 진보'를 택하자는 것이다. 이승리 씨(48, 경실련 알뜰가게 운영위원)는 그런 면에서 요즘의 30대가 자신의 30대 시절과 다르다고 말한다.

"우리 때는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는 사회적역할을 수행하려고 집박으로 나왔어요. 주부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40대 이전 주부들은 지역운동이나 현장에 아예 나오지 않고 더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구분이 더욱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이분법이 30대 여성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 30대 전업주부들이 '우리세대에 위기의 여자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더 미덥다.

(황금희 기자)